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실현을 위한 범농업계 공동토론회

2021. 2. 25. 목 14:00~17:30



주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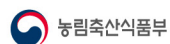


생선의 주인! 삶의 주인! 실천하는 여성농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우리농업의 희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후원 |



[프로그램]

사회 : 홍근형 팀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개회	14:00~14:15 (15')	개회사 :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축 사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 환영사 : 박홍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기조 강연	14:15~14:45 (30')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휴식	14:45~14:50 (05')		
주제 발표	14:50~15:50 (60')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방안 식량주권과 남북공동 토종종자사업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농업기술교류센터 설치 구상	김관호 책임연구원 (농어촌공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남북위) 선애진 부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서용석 부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휴식	15:50~16:00 (10')		
토론 및 질의 응답	16:00~17:20 (80')	좌장 :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장) 토론 : 유명환 과장 (강원도 농정과) 김소영 차장 (농민신문) 김영운 대표 ((사)남북물류포럼) 이태헌 대표 ((사)통일농수산물사업단) 정학철 정책위원장 ((사)전국쌀생산자협회) *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활용한 질의응답	
폐회	17:20~17:30 (10')	종합정리 및 폐회	

[목 차]

인사말씀

(개회사)

-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3

(축 사)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5
-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6

(환영사)

- 박홍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8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10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 12

기조강연

-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 15

이종석 수석연구위원 (前 통일부장관, 세종연구소)

주제발표

- 1.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방안 ----- 21

김관호 책임연구원 (농어촌공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남북위)

- 2. 식량주권과 남북공동 토종종자사업 ----- 41

선애진 부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3.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농업기술교류센터 설치 구상 ----- 57

서용석 부총장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개회사



정 현 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입니다.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지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에 저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고 농업계가 구상하는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범농업계가 함께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 토론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님, 이개호 농해수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님, 선애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님,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님 그리고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강원도 유명환 과장님,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운 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팀은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원인이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기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세계 식량가격 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지만,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당장 우리 일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상이 한 순간에 바뀌고 나서야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 다른 나라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임을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간 농업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며 북한의 식량난 악화에 따른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로서 농업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외교적인 문제 혹은 다른 경제적인 문제로 번번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와 기상재해 그리고 유엔의 경제 제재까지 겹친 3중고로 주민의 63%가 식량 섭취가 부족하고 올 봄에는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산림 병해충, 임진강 수역의 홍수 등 전염병과 자연 재해만 보아도 남과 북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은 이미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수되고 있으며, 고위도 유사기후대에 적합한 식량작물 품종과 재배기술을 실증한 축적된 연구 성과도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의 장기 보관을 위한 기술력도 탁월합니다. 남북간 농업협력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국민의 지지 속에 남북간 농업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남과 북이라는 단절된 인식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북한의 식량문제 등 농업부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고, 공간적 제약도 있지만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변영과 통일농업을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방역지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송 영 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 실현 범농업계 공동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겠습니다.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와 농업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선진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대한민국과의 상호협력은 서로간에 윈윈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이고 특히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파, 감자, 옥수수부터 협력이 필요합니다. 씨감자, 씨양파, 북한 옥수수 개량과 같이 고민이 많았던 분야들, 이런 분야가 빨리 물꼬가 터져서 남북한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공동체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모색을 하는 공동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이 개 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 국회의원 이개호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범농업계 공동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님, 전농 박흥식 의장님, 전여농 양옥희 회장님, 한농연 이학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는 우리 농업이 당연히 먼저 열어줘야 합니다. 남북한 농업이 서로 상호 보완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들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기술, 자본, 시장 그리고 북한의 농업 기반과 풍부한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고 인도적 문제 해결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소 경색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먼저 노력을 해 준다면 ‘남북 관계에 훈훈한 훈풍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앞으로 우리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남북 농업 교류의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고 또 효율적인 추진 대안이 함께 모색되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농업을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 농업 실현을 위한 범농업계 공동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박 홍 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자주적 평화통일은 한반도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홍식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두 손 맞잡고 등장한 남북 선수들에게 받은 감동은 그 해 4월27일 판문점 남북회담과 9월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양에서 정상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후속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은 전쟁없는 한반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민족적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합의내용을 15만 평양시민에게 직접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우리 민족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감동받지 않은 이 없었을 겁니다.

2021년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2020년 6월16일 북은 남북정상간 합의조차도 미국에게 실무적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측의 비자주적 종속적 대미관계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 전 순풍같은 남북관계는 정상간 합의를 지키려는 남측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갖가지 모순을 폐기하는 사회대개혁의 길이기도 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굴레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활용되고 있고 매년 1조원 가량을 미군 주둔비로 지급해야 하고 매년 몇십조의 미국 군사복합체의 무기를 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관계를 미국이 조율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봉쇄해버리는 모습도 흔히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2021년 국가 총예산 558조원 중 농업예산이 16.3조원 인데 국방예산은 52.8조원입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통일은 사람 죽이는 예산을 사람 살리는 예산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음을 확인됩니다. 통일의 길이 바로 사회대개혁의 길인 이유입니다.

통일의 과정에 자주성은 포기해서는 안되는 원칙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권 국가들간의 싸움에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15선언에서 합의하였듯이 남의 연합 제안과 북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자주통일의 길에 농민, 농업계 또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역할을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토론회를 농특위와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의 길에서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강령에 조국의 자주통일 실현을 명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업이 조국통일에 이바지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농업계의 토론회에서 제출되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무엇을 더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과정이 농업계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보태겠습니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길임을 잊지 않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고견을 나눠주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환영사



양 옥 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실현을 위한 협력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잇따라 식량보급정책을 펼치며 먹거리 수출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식량주권(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46.7%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식량주권(식량안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지금의 식량자급률도 보장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본격화되리라 믿었지만 다시 후퇴한 남북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그동안 농업분야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영역을 담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교류 차원을 넘어 남북이 함께 전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통일농업이고 민족농업이며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농사가 그다지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지만, ‘농업이야말로 천하지대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북농민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일만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남북이 서로의 농사 현황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과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함께 할지에 대한 내용을 축적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대대로 여성농민의 손에서 손으로 토종씨앗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품토에 가장 최적화되었고 우리 체질에 가장 잘 맞고 우리와 가장 친근하여 토종씨앗이겠지요. 복녜는 과학농법,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안착시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나누고 배우는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농업 환경이 서로 크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은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먹거리로 민족의 밥상을 책임지겠다는 마음 하나는 남북농민이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농민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것을 가지고 복녜으로 가서 복녜의 농민들에게 자랑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오려고 합니다. 과정에서 우리는 이질감보다 큰 민족적 동질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 민족의 식량을 생산하느라고 갖은 고생을 다한 우리 여성농민들이 농민해방을 염원하는 농민의 투쟁에, 자주민주통일의 대의를 달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이 민족의 투쟁에 구경꾼일 수는 없기에,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10만 제곱킬로미터 크기의 작은 땅에서 오늘도 우리는 투쟁하고 또 꿈꿉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백두산 마을에서 또 한라산 인근에서 농민들의 풍년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농업교류협력의 경험과 사례들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여성농민들도 민족농업을 개척하는 길에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단단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이 학 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논의를 위하여 범 농업계가 모여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가 내실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그동안 남북간은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정부 및 민간의 교류가 단절되었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을 갈망하던 국민들이 이제는 통일에 대해 점점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손놓고 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통일농업시대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재해 등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내팽개쳐버린 상태에서, 맨손으로 복구작업에 매달리는 북녘 동포의 고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응징이 필요 하며,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된 상태이지만, 급변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시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계 차원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 작업을 통해, 굶주리고 혈벗은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구해내고, 남북 농업협력을 활성화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을 살려낼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향후 민간차원의 교류가 진전되어 추후 남북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대화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조강연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

이 종 석

2021.2.25

1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도전과 기회

도전 요소

- 트럼프가 닦은 북미비핵화 협상(현재 교착) 승계에 대한 의구심.
-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우려
 -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가능성 낮다: 오바마 시대는 핵 도발 상황, 현재는 핵실험,ICBM 중단 상태

기회요소

- 바이든 동맹 중시, 민주당 정부 전통
- 트럼프시대에 비해 한국정부 의견 상대적 존중 가능성
 - 트럼프 비해, 동맹균열 가능성 낮음: 이견조정을 위한 쌍방소통 가능
 - 바이든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트럼프보다 한국정부 입장 경청 가능. Ex) 오바마 기고문
-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의견 경청
 - 미국 설득 기회 넓어짐. 다만 우리정부의 대미설득 능력이 관건

2

한반도 핵심 문제 관련 미정부의 분위기와 대처 방향

북핵 문제

- 북핵문제 발생 후 30년간 합의·결렬 반복. 미 조야에 북핵문제 피로감 만연
- 북핵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 굳이 리스크 무릅쓰고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
- 북핵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
- 이란핵합의 복원, 동맹 재활성화, New START 연장 등에 정책 우선순위가 되면서 북핵문제 관심 상대적 저조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 한반도 정책 라인업 구축에 시간 소요. 올 상반기는 대북정책 재검토에 주력 가능성
-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위치시키고, 합리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여 한미 공유의 해법 마련이 과제

미중관계

- 바이든정부도 기본적으로 트럼프정부의 대중 인식과 대동소이
- 다만 대중전략에서 보다 세련된 경제정책 구사 전망
- 압박하되 필요 영역에서는 협력
-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 지명에서 보여주듯이 미국의 아시아전략 핵심이 중국견제가 됨으로써 미중관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 사고할 가능성 높아짐.
- '중국견제 전선에 한국 참여' 요구는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적 전망
- 체계적 전략적 대처가 긴요

3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대응 전망

노동당 8차대회(2021.1) 주목 사항

- 과거 당 대회와 달리 목표미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열린 이례적 대회
- 김정은은 공개적으로간 "엄청난 목표 미달" 인정/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분석 검토
- 김정은위원장의 조선노동당으로 전환 완성
- 7차대회: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 vs 8차대회: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대체
- 국무위원장 제도 폐지 조선로동당 총비서제 복원
- 대남 대외관계: 적극적 협상노선 포기, 소극적 대응전략으로 전환
- 대미정책은 "강 대 강", "선대선 대남" 입장 명확히 함
-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으나 먼저 양보하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것.
- 대남정책도 남한 하는 것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 정리

김정은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기로(임계점)에 선 인상

- 2018년 4. 국가전략노선 전환
- 개혁, 개방 강력 추진/ 그러나 비핵화협상 교착, 고강도 제재 지속 * 핵도발로 인한 경제제재가 장려해야 할 경제개방 정책을 좌절시키는 아이러니!
- 2019.2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제재 돌파 위해 자력갱생 과도하게 강조
- 2020년: 고강도 제재 + 코로나 + 자연재해의 3중고에 처함
- 개방정책 좌절상태/ 국가 가용자원 축소 속에서 국가통제 강화 / 사적 시장 위축 가능성 * 포전담담책임제의 운명

4

북한의 2021년 대남·대외 정책과 도발 가능성

- 적극적인 대남 협상 추진보다 소극적 대응 정책 유지
- 그러나 기존 문턱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계기에 대남 대화메시지 발신 가여지 남김
 - “이 엄중한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2021.1 김정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 이례적 침묵 및 도발 자제

-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는 내부 사정과 겹쳐서 미국의 선제적 자극이 없는 한 도발 가능성 낮음
- 제재압박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이 미온적이거나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상태 벗어나지 못하면 도발행동의 유혹 받을 것.
- 상반기 북한 도발 여부의 시험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미중 갈등 지속 가운데 북중 (경제)관계 강화 예상

- 중국통 당국제부장 기용(김성남)
- 올해 상반기(늦어도 가을)부터 대외부분 종사자들 중국산 백신 맞으며 북중 경험 활성화 시도 가능성.
- 코로나 상황 호전되면 7.11 북중 상호원조 조약 60주년 계기 교류 활성화 시도 가능성

5

한국의 대처방향

남북관계 교착국면 돌파와 자율적 발전 영역 확대 추구

-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한미 공유 노력
- 미국에 남북관계를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적극 활용 권고
-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북미관계를 개선시킨다는 것이 합리적 인식이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설명
- 개성공단 재개, 철도 연결, 대북관광 등 제재 예외, 유예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미설득
- 남북관계 진로의 시험대가 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중단) 결단 필요
 -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불가피.
 - 한반도 안보의 최대 현안목표(비핵화) 달성을 위한 연합훈련의 연기
 -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 불가능한 연합군사훈련 연기는 불가피 측면
- 담대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 의료, 의료방역 지원 ---

6

미국주도 북핵 해법에서 한국 주도성 강화 추구

- 한국의 촉진자 역할 부활
- 스냅백 (snapback) 전제의 단계적 동시행동 공개 제안 필요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견지하되 스냅백을 전제로 일련의 핵폐기 조치-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전략적 균형외교 추구

- 현안에 대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면서 사안별로 균형점을 찾는 노력
- 고정적,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사안별, 시기별로 국익에 기초하여 균형을 추구하는 유연성 발휘
- 미,중 사이에 일방 선택 통한 생존 가능한가?
 - 동맹관계를 중시하되, INF 폐기에 따른 중거리 미사일 배치, QUAD 등 한중 갈등 격화 가능성 부분에 대한 미국의 동참 요구 거부
 - QUAD에 끼지 못했다고 '소외' 운운(비전략적, 반국익적 연사)
 - 5G 화웨이 이슈,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등 결정적인 경제적 이익 직결된 사안은 자주적으로 결정
- 대미설득 방향: 동맹발전 의지를 명확히 하되, 미중갈등 속에 한국이 처해 있는 생존권 차원의 절실한 입장을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

-- 끝 --

주제발표 1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방안

김관호

농어촌공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남북위 책임연구원

『한반도 평화변영과 통일농업 실현 범농업계 공동 토론회』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농업공동체 협력방안

2021. 02.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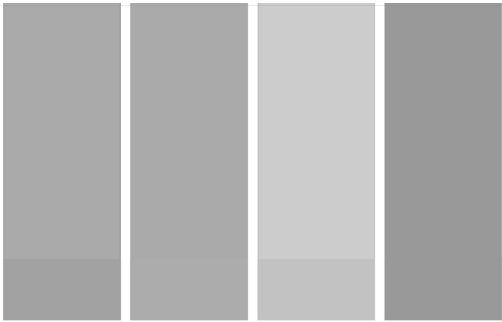
김 관 호 (man2@ekr.or.kr)



ifir
 water.
 Korean i
 producer
 Economy Map
 irrigation
 nomy
 peace energ
 u base Food security Agricu
 Agricultural water Borde
 Border area food Sustainable
 Agricultural water North Kor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Economic belt Agricultural product
 Peace and prosperi
 Ecotourism Food sec
 unification
 an Peninsula New Economy
 Agricultural and Fish Foo
 Sustainable unification ener
 Economic belt Peace belt
 Agricultural water
 energy irrigation
 Korea Rural Commur.
 rporation Agricultural
 energy Food security
 Agricultural and Fish Foods
 Ecotourism Agricultural
 nification Sustainable water
 food Korean Peninsula Ni
 Border area Ecotourism
 energy Sustainable peace
 Korean Peninsula Sustainable
 unification New Economy Map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Border area water
 food
 u base
 u base
 u base

발표순서

1. 북한의 식량사정
2. 북한의 농업정책
3. 제8차 당대회 분석
4. 남북농업공동체 협력방안
5. 맺 음 말



북한의 식량사정

2

농업성 산하 기관 (ㄱㄴ순)

<국 단위 : 30개>

간석지건설관리국, 감자생산국, 건설국, 과수관리국, 관개수리국, 관리국, 국영과수관리국, 국영농장관리국, 국영목장관리총국(사료처, 생산처, 수의처, 원종처)

남새국, 농기계운영국, 농기계공업관리국, 농산국, 농업경영구, 농촌건물관리국

대외협조국, 물길건설관리국, 수의방역국, 수출원천동원국, 인삼공예작물국

자재국, 재정국, 잡업국, 종자관리국, 종합계획국, 채종관리국

축산관리국, 토지감독국, 출판조성 및 축산국, 행정조직국

<연구소 및 기타 : 13개>

가금생물약품연구소(조직배양실), 관개설계연구소, 농기계연구소(벼수확기계연구실, 축산기계연구실)
농촌건설설계사업소, 문덕연유공급소, 종자관리 및 검사소, 중앙버섯연구소, 중앙수의방역소,
중앙식물방역소, 중앙인공수정소, 국가농작물 품종비교시험위원회, 중앙간부학교, 자재상사

3

2020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농촌진흥청, 2020.12.18발표)

(단위 : 만톤)

구 분	쌀	옥수수	서류 (감자,고구마)	보리류	콩류 및 기타	전체
2019(a)	224	152	57	15	16	464
2020(b)	202	151	54	16	17	440
증감(b-a)	-22(9.8%)	-1(0.7%)	-3(5.3%)	+1(6.7%)	+1(7.1%)	-24(5.2%)

- ✓ 쌀 : 벼 재배기간 동안 강우량이 많았고, 일사량은 적었음. 벼가 여우는 시기인 8월부터 장마와 태풍 발생
- ✓ 옥수수 : 개화기인 7월부터 이삭이 여우는 8월까지 장마, 일사량 부족
- ✓ 감 자 · 고구마 : 봄 감자는 가뭄, 여름감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
- ✓ 보리류 : 봄에 파종한 보리류는 봄철 가뭄과 냉해 피해
- ✓ 콩 류 : 재배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토양 내 수분공급 원활
- ✓ 기 온 : 작물생육기간 동안 평균기온 19.8도로 작년보다 0.5도 낮았음
- ✓ 강수량 : 1,181mm로 작년보다 650.3mm 많았음
- ✓ 일사량 : 작년보다 6.4% 적었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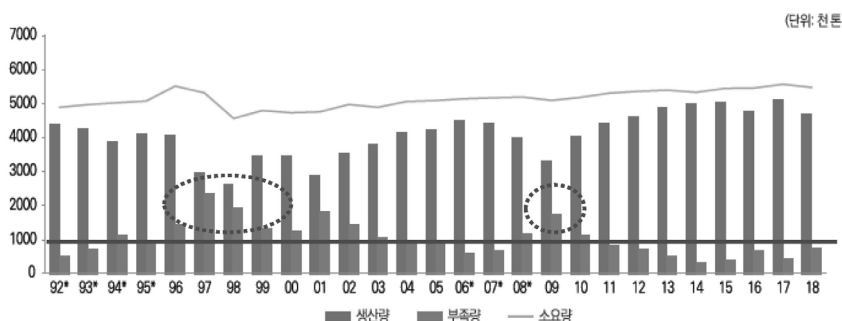
2020년도 북한의 식량부족량 예측

- ✓ 통일부, 북, 86만톤 곡물 부족 추정 (2020.05.19)

북한의 곡물 수요량을 550만톤 - 곡물공급량 464만톤 = 86만톤 부족

- ✓ 2020년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110만톤 곡물 부족 추정 - 농진청 자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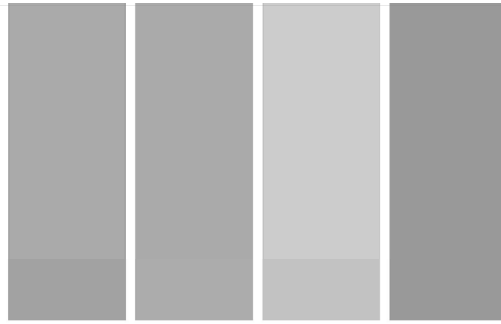
북한의 곡물 수요량을 550만톤 - 곡물공급량 440만톤 = 110만톤 부족



주: *FAO가 1995년부터 통계청 제공함에 따라(2005년~2007년은 미발표), 1992년~1995년, 2005년~2008년 통계는 KREL 농촌진흥청 자료임
참고: 북한 식량 수요량을 나타내는 노란선의 높이를 생산량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초과한 년도가 한 번도 없음. 녹색 막대는 부족한 식량 부족분을 나타냄
북한 식량 생산량 추이는 기후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변수도 있으나, 1992년 생산량과 최대생산 년도인 2017년 생산량에는 차이가 없는 가운데, 수 십년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은 농업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자료: FAO,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농촌진흥청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9.9.26)

5



북한의 농업정책

6

김정은 시대 주요 농업경제정책 발표

- **2012. 6.28 방침** 분조규모를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 생산물의 70%는 국가, 30%는 분조의 몫으로 분배
- **2014.5.30 조치** 분조를 가족단위로 재편하여 규모 축소, 생산량의 40%는 국가, 60%는 농가 소득으로 분배하는 인센티브 확대
- **2015.6.25 농장법 개정** 분조관리제 등의 실시, 농업생산계획의 작성실행, 농장의 결산분배
- **2016 노동당 제7차 당대회(5.6-5.9)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2019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12.28-31)**
- **2021 노동당 제8차 당대회(1.5-1.12)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 농업부문별 협의회
- **202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1.17)**

*2020년 신년사 없음

*2021년 신년사 없음

7

북한의 신년사 분석 (2014-2019 ; 6개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업	-과학적 영농방법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 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 -온실채소와 버섯재배	-물절약형 농법 -영농물자 보장 -온실과 버섯생산기지 정상화 -고산과수농장 완공	-우량품종과 과학농업 -농촌경제의 종합적 기계화 -농자재 보장대책 -채소온실 버섯생산기지 에서 생산량 목표 달성	-우량품종과 과학농업 -이모작농사면적 확대 -농기계 적극 도입 -과일과 채소 버섯생산량 증대	-우량종자와 다수확농업 -농기계 생산 과학농사 -온실남새와 버섯생산량 증대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영농공정별 과학기술적 지도 -영농물자 보장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
축산	-축산적극 발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로 축산물생산과기후환경준비	-축산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어야 함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 운영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축산물 생산 늘림	-축산업발전 4대 고리 실현 -닭공장들 비롯한 축산기지 현대화 활성화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 장려
수산물	-고깃배와 어구현대화 -과학적방법과 바닷가양식 식활성화	-양어기지 정상화 -수산업 발전 -물고기대풍으로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향기	-수산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어야함	-양어와 양식을 확대 -현대적인 고기배 생산 -동해안지구에 종합적인 어 구생산기지 구축	-배제작과 배수리 능력 제고 -양어와 양식 활성화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 -수산자원 보호 증식

8

2020년 신년사 대체 -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019.12.28-31)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는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량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농업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욱 완성하여 흉풍을 모르는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나라의 농업토지를 한선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업과 과수업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었다.

- (분석)
- △ 농업과학연구기관 확충, 농업과학기술인재 양성
 - △ 농촌경리수리화 완성
 - △ 농기계비중 증가
 - △ 농업토지의 통일적 관리
 - △ 축산업과 과수업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전환

△ 농촌경리수리화 완성

농산물을 비롯하여 축산, 과수업, 누에치기 따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일. 식량을 비롯하여 식품가공업의 원료와 섬유, 가죽, 의약품 및 기호품의 원료 등 여러 가지 생산물을 생산한다.(북한어), 다음사전

노동신문 12.29일자에는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12.30일자에는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당의 사상의 기본요구'라고 연속 2회에 걸쳐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

9

①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

- 수확고가 높고 비료를 적게 요구하고 피해에 잘 견디는 우량품종 육종
- 새품종에 대한 보급사업 개선, 종자생산의 과학화 수준 증대

(평가)

-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농업수리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
-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과 충분한 농자재 뒷받침 필요
- 북한당국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 가능한지 의문임

② 농사를 과학화, 수자화, 기계화

-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 비료와 농약과 같은 영농제품 개발 도입
- 영농공정의 품종배치와 비배관리, 토지이용률과 농사의 집약화 향상
- 종자와 물, 에너지, 자재, 노동력을 줄이면서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문제 해결
- 정밀농업기술 확립,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영농기술 및 방법 도입
- 과학기술보급실 운영, 지형조건과 사람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노동절약형농기계 연구개발

(평가)

- 정밀농업기술과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 등 통계자료를 통한 과학농사 강조
-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농자재 및 농기계 신기술 개발 및 보급 강조

10

③ 새땅찾기 운동을 힘있게 벌려 알곡생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

- 논벼재배면적과 강냉이재배면적을 무조건 확보하기 위한 투쟁
- 간석지건설에 힘을 넣어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찾아내야 함
- 유실된 부침땅을 원상복구하고 지적도보다 줄어든 면적의 토지 찾아내기
- 토지정리를 마저 하여 땀기밭까지 번듯하게 정리
- 비경지에 농장원 한사람당 1,000포기이상의 알곡작물을 더 심기

(평가)

- 북한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하는데 주력
- 노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기계와 작물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보장되어야 함.
- 특히, 자연재해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함
- 알곡생산면적을 늘리기 위해 간척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환경피해를 줄이고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11

④ 저수확지에서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

- 저수확지에서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영농기술개발과 과학적인 영농방법
- 비탈밭과 모래, 자갈, 석비레밭과 저수확지들에서 냉습지개량, 흙갈기, 밭들추기, 비옥도를 높이는 사업 강화
- 디수확을 낸 단위와 농장원들의 기술경험 발표회

(평가)

- 수확고가 높지 않는 농경지에 경지정리를 통해 농업기반시설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지하수위가 높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 저습지 개량이나 배수개선사업
- 농업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인프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⑤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

-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 구현
- 농장원들의 주인다운 입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도록 독려
- 알곡을 정보당 10톤 이상 내기 운동
- 농업부문 당조직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목표 수행

(평가)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2012.5.30.조치, 2014.6.30., 2015에 개정된 농장법이 말단단위 협동농장에서 실행되도록 강조
- 협동농장 농장원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책임감과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농업생산성을 증대 시키려는 것으로 해석

12

노동신문 사진으로 본 주요 농업 기반 추진



중평남새온실농장 내부(2019.12.31)



순천린비료 공장준공(2020.0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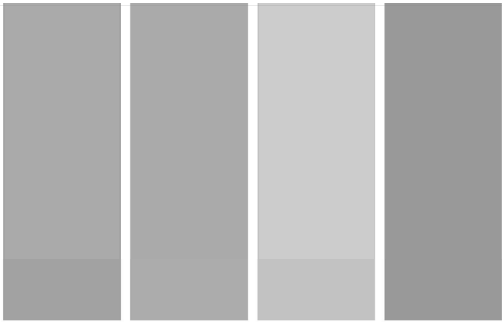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완공(2020.05.01)



평북서해간석지 건설 박차 (2020.06.21)

13



제8차 당대회 분석

제7차 및 제8차 당대회 농업부문 국가경제발전 5개년 비교분석

구 분	제7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년-2021년)	제8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년-2025년)
농 업	- 주체농법 요구대로 과학농사 - 우량품종 육종 - 지방별, 품종별 종자생산 -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배치 - 농작물비배관리, 선진영농방법실천 - 유기농업장려, 고리형순환체계확립	- 종자혁명 - 과학농사 -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 - 농촌경리의 수리화
축 산	- 집짐승증자와 먹이문제 해결 - 사양관리, 수의방역 대책 - 풀먹는 집짐승기르기 - 협동농장 공동축산과 개인축산발전	- 농산과 축산, 과수를 발전
과 수	-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 - 남새온실과 버섯공장 생산 정상화	
농업 기계화	- 농산작업의 비중을 60-70% 수준향상 - 농기계 공장의 설비와 생산공정 현대화 - 농기계와 부속품 대대적 생산 - 영농공정의 기계화	- 농촌경리의 기계화
수 산	-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 -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상예보,해상지휘, 물고기 가공체계와 설비 및 전력감시 체계, 배수리 체계 구축 - 양어에서 노동절약형, 물절약형 방법으로 바다양어, 그물 우리양어 전개 - 바다가 양식을 높이고 양식방법 개선	- 고기배와 어구 현대화 - 물고기 잡이를 과학화 - 수산사업소들과 선박수리기지를 현대화 - 수산자원을 보호증식 -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 수산물생산 증대

노동당 제8차 대회 개최와 제7기 사업총화 보고



사진출처 : news1

✓ 노동당 8차대회는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음.

* 7차 당대회 : 2016년 5월 6일- 5월 9일(4일간) 개최

✓ 회의가 길어진 원인은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을 방증하고 있음.

* 부문별 협의회를 거치면서 대회장기간이 길어졌음



<지난 국가경제개발계획(2016-2020) 실패 인정>

✓ 지난 5년간의 간고했고 영광 넘친 투쟁여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과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시인하였음

✓ 경제발전이 부진한 이유는 내외부에 존재.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

16

총결기간 농축수산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

✓ **농업부문** 지속된 흑심한 가물과 큰물,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0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결과,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40만톤으로 지난 2019년도 464만톤에 비해 약 24만톤(5.2%)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주된 이유는 전반적인 불량한 기상조건과 8-9월 태풍피해로 식량작물 생산성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계통적으로 생산증대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김정은 시대 북한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축으로 농업, 축산, 수산을 강조하였음.

알곡작물과 함께 수산물에 대체 식량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수산분야에서는 내수면양식을 활성화하여 단백질 보충.

양어와 양식을 확대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생산기지 구축을 강조하였음.

✓ **경공업부문**에서 주요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하여 인민소비품의 질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

공업을 중심으로 농수산물을 2차가공한 식품산업이 상당히 발전하였음.

과자, 음료수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음.

북증무역에서 밀가루, 콩기름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음

17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1-2025)

- ✓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수행에 영향을 미친 주객관적 요인들을 분석하였음
 - 객관적 요인 : 대북제재
 - 주관적 요인 :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 지난해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코로나-19)
- ✓ 앞으로의 5년간(2021-2025) 경제분야에서의 투쟁 전략을 밝혔음.
-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방향
 -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 구축
- ✓ 중심과업 :
 -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
 -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
 - 경공업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18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 농업부문

- ✓ 사업방향 :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
- ✓ 5개년 중심 목표 :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는 것임.
- ✓ 전략 사업 : ① 종자혁명 ② 과학농사 ③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④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 ⑤ 농산과 축산, 과수를 발전
⑥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출처 : 뉴스1

농업부문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전략사업의 내용은 2019년 말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농업발전 5대요소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음.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19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 농업부문

① 종자혁명

농업혁명 방침의 매우 중요한 사업임. 비료를 적게 쓰면서 수확을 늘리고 추위나 더위 및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우량품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② 과학농사

적지적작, 적기적작을 원칙

종자와 물, 에너지, 자재 노동력을 줄이면서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

③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수확고가 높지 않는 농경지에 경지정리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을 개선 필요.

지하수위가 높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 저습지 개량이나 배수개선사업이 진행.

농경지에 복토, 객토 등을 통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시켜야 농업생산성이 증가 될 것임

20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 농업부문 분석

④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

북한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하는데 주력

간석지건설에 힘을 넣어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찾아내고 있음.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이면 간석지 개간 사업규모를 줄일수 있음

⑤ 농산과 축산, 과수를 발전

‘고리형순환체계’를 강조하고 있음. 비료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축산 부산물을 농산과 과수에 퇴비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임.

알곡작물 대체식량으로 축산과 과수를 활용할 수 있고, 2차 가공하여 경공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을 것임

⑥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수리화는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논밭작물의 수분생육을 보장

토지정리, 저수지개보수, 용수로 정비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편의를 제공

농업기계화는 노동력을 줄이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증대

2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 수산부문 분석

✓ 사업방향 : 인민들의 식생활과 직결된 3대 부문의 하나로 규정

✓ 전략사업

- ① 고기배와 어구 현대화 ② 물고기 잡이를 과학화 ③ 수산사업소들과 선박수리기지를 현대화
④ 수산자원을 보호증식 ⑤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 수산물생산 증대

김정은 시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축산, 수산업을 3대 축으로 정하고 있음.

전략사업내용은 2017, 2018, 2019년 신년사에 제시한 내용과 거의 비슷함.

수산업도 농업처럼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수 산	-양어와 양식을 확대 -현대적인 고기배 생산 -동해안지구에 종합적인 어구생산 기지 구축	-배제작과 배수리 능력 제고 -양어와 양식 활성화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 -수산자원 보호 증식

22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8차 대회' 결론

✓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기본은 농업생산에 계속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것이라고 하였음

-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농업부문에서 더욱 분발하여 들고 일어나고 국가적인 투자를 늘여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함
- 특히, 앞으로 2-3년간에 해마다 국가의무수매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며 수매량을 늘여 인민들에게 식량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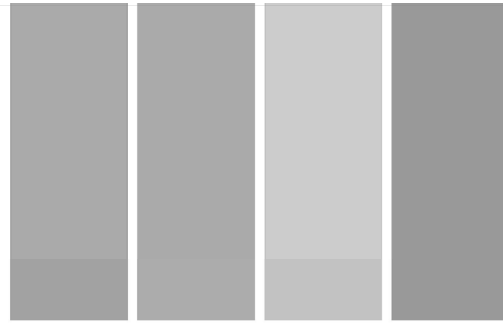
농업부문에 국가적인 투자를 늘여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대북제재 등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투자를 할지는 좀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임.

외부의 투자 없이 북한 스스로가 투자를 늘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장 둔화와 환율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2-3년간은 농업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9년도 수준으로 국가의무수매계획을 밝혀 협동농장 농장원과 주민들에게 식량공급 안정화를 약속한 것으로 추정됨.

2019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농진청자료에 따르면 464만톤으로 쌀 224만톤, 옥수수 152만톤 등 임.

23



남북농업공동체 협력방안

(농특위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안건)

24

남북농업개발협력 전망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4.2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0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2018.04.27.)
5.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u>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u> 나감,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0 광복절 경축사 - 문재인 대통령

- ✓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 강조
 - 방역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
 -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상황에 협력
 -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램

2021 대통령신년사 중에서 (1.11)

- ✓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해
- ✓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
-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동력은 대화와 상생협력임
- ✓ 남북이 합의한 모든 합의 공동이행 -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 공동 이행

25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한 남북농업협력 추진 필요

구 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1년 -2025년)	대북제재 하 (일부 대북제재 면제 필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농 업	- 종자혁명 - 과학농사 -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 새땅찾기와 간척지 개간 - 농촌경리의 수리화	-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지원 - 우량종자, 비닐박막 지원 - 유기질 비료 및 유기농업 협력 - 제3국에서 농업과학기술 및 학술 교류 - 품종 공동연구 개발 (토종품종 보존) - 협동농장 공동 영농으로 영농기술 지원 등 개발협력(기반조성 및 운영)	- 북측 수요가 있는 시범사업 추진 - 종자생산, 가공보관처리 시설 협력 -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서의 농업 개발협력 (농업개발구 등) - 농업수리화 개선 및 계획수립 협력 - 간척지를 이용한 토지이용계획 등 기술 개발 협력
축 산	- 농산과 축산, 과수를 발전	- ASF 및 구제역 협력 - 개인부업축산(양계, 양돈) 협력 - 채소, 과수 우량품종 협력 - 병충해 조사 및 방제 기술 - 잠업 등 특용작물 분야 협력	- 세포축산기지 및 고산과수농장 등 합작 합영(계약재배) 운영 -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 수의약품 및 검사장비 현대화 - 6차산업과 연계
과 수			
농업 기계화	- 농촌경리의 기계화	- 농기계 기술 교류 - 순수 농사용 농기계 지원 - 양묘장 건설관리를 위한 농기계 지원	- 농기계 공장의 설비와 생산공정 현대화 -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기술개발협력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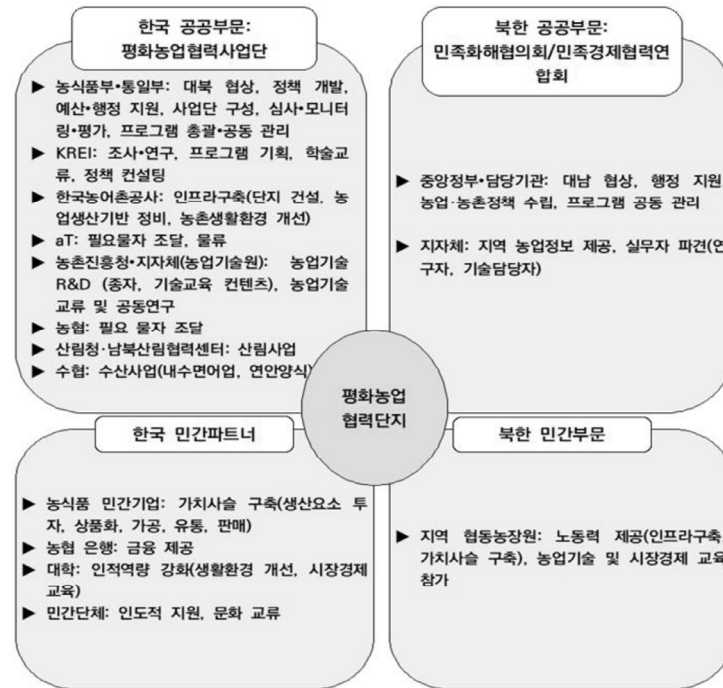
평화농업협력단지(가칭) 모델의 기본 구상

- 01 북한 농업·농촌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거점지역인 '평화농업협력단지'에 집중하여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
- 02 평화농업협력단지 경제개발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농업·농촌 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인큐베이터'로 활용
- 03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경제협력사업(투자협력, 계약생산, 교역)을 추진하여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



27

평화농업협력단지는 남북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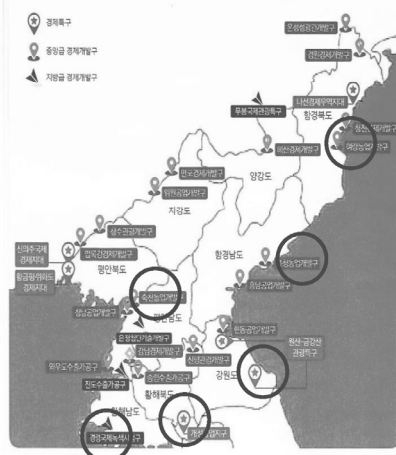


28

평화농업협력단지 입지 선정 지표와 입지 후보지

입지선정 지표

- ✓ (접근성) 원료 조달, 생산물 유통 등 물류 이동의 효율성, 사업 관련 남북한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물리적 거리 중
- ✓ (생산요소 조달 용이성) 전력, 농업용수, 인터넷 등 농업생산에 중요한 요소들의 기용성
- ✓ (북한의 발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북한의 농업·농촌개발계획, 특구·개발구 운영계획 등과 부합
- ✓ (대북정책과의 부합 여부) 평화경제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대북정책과의 관련성
- ✓ (지리적 조건) 농업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도, 경사도, 일조량이 많은 지역,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 (수요처와 연계성) 북한 소비자와의 인접성, 수출시장과의 교통 연계 등도 고려



입지 후보지

- ✓ 남북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 개성공단 배후지, 원산-금강산 배후지역이 적정
- ✓ 개성공단 배후지 : 해주-개성 남북접경지역,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식부자재 공급
- ✓ 원산-금강산 배후지 : 남북강원도 접경지역, 관광지주 관광객들에게 식부자재 공급
- ✓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 황해남도 강령녹색개발구

29

남북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 공급 및 농산물 경험 확대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의 평화농업협력단지 조감도



원산-금강산 관광지역 인근 배후지역과 연계한 남북농업개발협력



평화농업협력단지 추진을 위한 과제

01

대북 제안과 효율적 협의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 ✓ 북측에 제시할 비전, 목표, 기본방향, 대안, 세부 추진계획 등 수립
- ✓ 남북 양측의 기대효과, 사업비 추정,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등

02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중앙 부처간 협조 분담 체계 구축
- ✓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전문 분야별 사업 시행 주체로 참여하는 체제 구축

03

남북 당국간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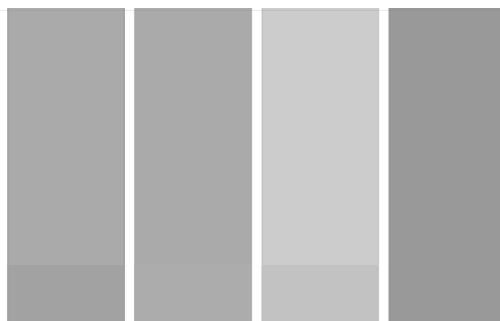
- ✓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해결과 육상 통로 확보
- ✓ 방역, 검역, 식품안전, 원산지 증명 등 남북한 제도 마련 등

04

국내 법적·제도적 정비

- ✓ 평화협력단지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반입에 대한 특례
- ✓ 평화협력단지에 투입될 시설과 장비의 반출에 대한 특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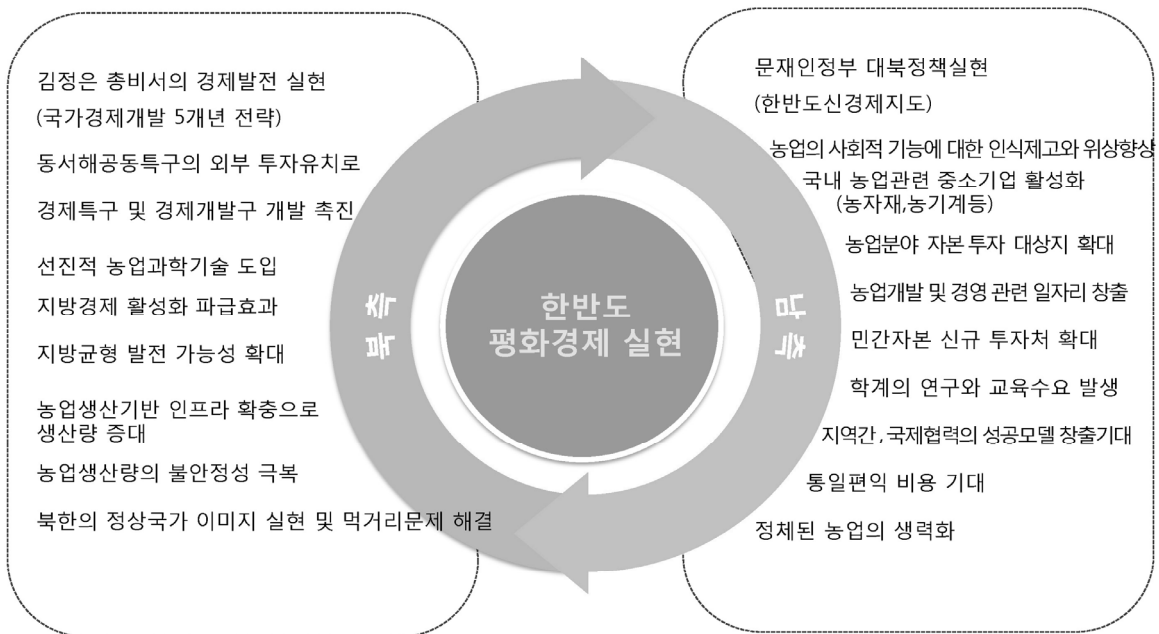
32



맺 음 말

33

남북 농업상생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주제발표2

**식량주권과 남북공동
토종종자사업**

선애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식량주권과 남북공동 토종종자사업

• 여성농민 금강산 토종통일텃밭 사업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취지/목표



취지 남측 여성농민들의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여성농민이 주체가 되어 식량주권도 지키고, 통일농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남북이 서로 다른 농업구조와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텃밭을 함께 가꾸는 과정에서 서로의 농업을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통일농업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목표

- 남북의 (토종)씨앗을 북녘땅에서 파종, 남북농민이 함께 텃밭농사를 짓는다.
- 남북이 함께 농사짓고, 먹거리를 나누며 서로의 농업에 대해 이해하고, 농민문화교류를 통해 정을 더욱 두텁게 쌓아간다.
- 토종, 통일의 의미를 담은 건강한 먹거리를 온 겨레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기후위기, 토종지키기의 한계를 남북 농민이 함께 방법을 찾고 극복한다.
- 남북농민들의 지혜와 힘으로 식량주권을 지키고 식량자급율을 높인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전여농 식량주권사업

1. 토종씨앗지키기 사업



토종채종포(1시군 1토종지키기)



토종통일텃밭

- 토종씨앗 실태조사
- 토종작물 육성지원조례만들기
- 토종씨앗축제(추수한마당)
- 만원의행복, 토종책 만들기
- 토종농사 지혜모으기 대회
- 식량주권 워크샵
- 생산자와 소비자가 월 1회 만나 직접 함께 농사짓기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전여농 식량주권사업

2. 생태농업의 확산



생태텃밭지원(고령, 제주)



생태농법 농사(논산)

- 농생태연수
- 생태농법 경험나누기
- 농사비법 경진대회
- 선진지견학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전여농 식량주권사업

3. 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협동조합 (전여농 식량주권사업단)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만나는 <언니네텃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전여농 식량주권사업

4. 남북여성농민교류



남북여성농민 <걸어서백두산까지>
(교류신청거부 규탄 통일부 앞 기자회견, 2016)



남북여성들의 모임, 토종씨앗 전시(개성, 2015)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전여농 식량주권사업

5. 북 (농업)바로알기



- 김진향 이사장, 김이경 이사장, 진천규 기자, 평양시민 김련희님 등 강연을 통한 북 바로알기

- 자주통일공부모임(2019~2020)을 통해 북의 농업에 대한 이해 높이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전여농 식량주권사업

6. 통일농업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2021~)



- 북의 과학농업- 함경북도 중평남새온실▲
- 세포지구 축산기지 고리형순환생산체계▶
-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금강산 토종통일텃밭



방식

- 장소 : 금강산, 개성 등
- 규모 : 논의하여 정하되 점차 확대한다.
- 종자 : 콩(된장, 두부, 떡) 또는 깨(기름, 강정) 와 채소류
- 관리 : 텃밭은 남북여성농민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관리하고, 파종이나 추수 등 시기별 행사도 함께 기획한다.
- 소비 : 전여농 식량주권사업단 '언니네텃밭'과 생협, 시민단체를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고 통일농업의 의미를 국민과 나누고 확산시킬 수 있게 한다.
- 기간 : 1년 과정으로 농사짓고 한 해 평가를 통해 다음해 농사를 계획한다.
- 교류 : 북측의 농업현장 방문, 북의 과학농업에 대한 연구를 1년 과정으로 진행한다.
- 당장의 교류가 어려울 경우 강원도 접경지역(철원 또는 고성)에 '금강산을 열자!' 채종포 조성 예정: 2019년 북의 신년사(땃가나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에 대한 남측정부의 화답을 촉구함

* 금강산 토종통일텃밭은 전여농과 농근맹이 논의를 통하여 내용을 추가, 보완한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월별 세부 일정

농사 준비

텃밭견학
작목선정 회의
농기구 점검

농사

밭 고르기
친환경 거름준비
씨앗준비

행사

풍년기원 남북농민축제
식품가공공장 견학

토론과 공부

북녘의 텃밭(남새)농사
북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이해와 연구(1년과정)
농사일지 작성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텃밭견학



풍년기원 남북농민축제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씨앗준비



북녘의 남새농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월별 세부 일정

농사
준비

친환경 비료 만들기
벌레기피제 만들기

농사

들깨, 참깨 심기
콩류 심고 덩쿨콩 버팀목 설치
거름주기, 목초액 등 벌레잡기, 풀매기
옥수수, 고추 등 채소심기

행사

매실액, 매실장아찌 담그기(언니네텃밭 매실)
협동농장 모내기(대학생/민중농활)
<판문점선언>기념 농민경축한마당

토론과
공부

친환경비료만들기, 자닦 등 농생태학에 근거한 농사비법 나누기
남북의 농기구(계) 비교
북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이해와 연구(1년과정)
농사일지 작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협동농장 모내기
(대학생/민중농활)



친환경 비료 만들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들깨, 참깨 심기



북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이해와 연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월별 세부 일정

농사
준비

장마대비
가을밭만들기
내년 농사달력준비

농사

열매채소 웃거름주기
콩 순 따기, 풀베기, 참깨털기
가을앞채소 심기

행사

남북농민 자주통일대회
9.19평양공동선언 기념대회
전국여성농민대회

토론과
공부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일종합가공공장 견학
북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이해와 연구(1년과정)
농사일지 작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가을밭만들기



전국농민자주통일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깨털기



과일종합가공공장 견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월별 세부 일정

농사
준비

월동준비
농사달력 완성, 나눔하기

농사

들깨털기, 콩 따기
서리대비 작물수확, 씨앗 갈무리
월동작물 심기

행사

김장김치 담그기, 된장 담그기
남북여성농민 추수한마당
: 농민과 소비자의 만남, 지역별 토종음식 자랑대회

토론과
공부

텃밭 농사 평가와 내년 계획
북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이해와 연구(1년과정), 발표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작물수확, 씨앗 갈무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잇발



남북여성농민 추수한마당 : 생산자, 소비자와의 만남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잇발



북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이해와 연구(1년과정) 발표대회

남북여성농민이 함께 하는 김장김치 담그기
(지역별 토종음식 자랑대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딴발

중점사업

남북농민대회

남북이 함께 하는 풍년기원제

남북여성농민 추수한마당

북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이해와 연구

북의 남새농장, 협동농장, 가공공장의 방문

대학생/민중 농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딴발

남북관계의 현주소

- 남북관계 : 대북전단살포,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4.27판문점선언 이전 상태로 후퇴
- 한미워킹그룹으로 남북관계가 간섭받고 있는 현실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자주성 결여
- 한미군사훈련, 대북제재 등 정부의 미국 눈치보기, 의존적 태도
- 남북관계 교착으로 농민단체에서 준비한 트랙터 보내지 못하는 상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남북교류 성사를 위한 남측의 역할



- 한미연합훈련과 무기도입 중단
-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선언
- SOFA, 유엔사, 한미위킹그룹 등
종속적 대미관계 종식
-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수도 있을 것”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사업총화보고 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북여성농민 토종통일텃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제발표3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농업기술교류센터
설치 구상**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교류센터 설치 구상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서용석

남북농업협력 교류 주요 사례

❖ 정부 지원 주요 사례 - 당국차원 지원 중 대북 식량지원 현황

연도	지원실적	금액	형태
1995	국내쌀 15만톤	1,854억원	무상
2000	외국산쌀 30만톤, 중옥수수 20만톤	1,057억원	차관방식
2002	국내쌀 40만톤	1,510억원	차관방식
2003	국내쌀 40만톤	1,510억원	차관방식
2004	국내쌀 10만톤, 외국산쌀 30만톤	1,359억원	차관방식
2005	국내쌀 40만톤, 외국산쌀 10만톤	1,787억원	차관방식
2006	국내쌀 10만톤	394억원	무상
2007	국내쌀 15만톤, 외국산쌀 25만톤	1,505억원	차관방식
2010	국내쌀 0.5만톤	40억원	무상
계	쌀(국내외) 265.5만톤, 중옥수수 20만톤	11,015억원	무상 2,288억원, 차관 8,728억원

자료 : 통일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Food.do>)

남북농업협력 교류 주요 사례

❖ 정부 지원 주요 사례 - 당국차원 지원 중 대북 비료지원 현황

연도	규모	금액
1999	11.5만톤(민간 4만톤)	339억원(민간 4만톤 포함시 462)
2000	30만톤	944억원
2001	20만톤	638억원
2002	30만톤	832억원
2003	30만톤	811억원
2004	30만톤	940억원
2005	35만톤	1,207억원
2006	35만톤	1,200억원
2007	30만톤	961억원
합계	251.5만톤(255.5만톤)	7,872억원(7,995억원)

자료 : 통일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Food.do>)

남북농업협력 교류 주요 사례

❖ 민간 협력 주요 사례

- 통일농수산물사업단
 - ✓ 금강산,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경기도
 - ✓ 당곡리협동농장 개발사업 / 기타 개발지원사업
-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경남도
 - ✓ 장교리협동농장 개발사업 / 딸기모종 교류사업
- 월드비전
 - ✓ 인공씨감자 증식 보급체계 / 시설채소단지 조성
- 굿네이버스
 - ✓ 구빈리협동농장 축산개발 / 용강젖소 목장개발

자료 : 남북농업교류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2012. 장경호, 사)통일농수산물토론회. 발제자료를 편집, 인용

남북농업협력 교류 주요 성과

❖ 인도적 차원의 농업, 식량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견인

- 1984년 대홍수 피해 시 식량, 의류 지원 → 이산가족 상봉, 남북 문화교류 확대
- 1990년대 초반에는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합의, UN동시가입 등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 →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소 → 남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 완화 및 신뢰도 제고

❖ 민간차원 농업기술교류 확대로 북한의 농업 기술적 문제 해소에 기여

-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성 확대 견인
- 주요 품목별 식량 자급 기반 조성 및 가능성 확인

남북농업협력 교류 주요 성과

❖ 농업 자립기반 강화, 생산성 향상에 기여(남북공동영농사업)

식량생산증대	벼농사 생산량 30% 이상 증대 밭작물 생산성 30~50% 증가	○ 금강산지역 공동영농사업 - 기간 : 2005~2008년 - 규모 : 1,110ha(11개 농장) - 방문회수 : 총 224회 - 방문인원 : 연인원 1,071명
농업기술개선	남한 평균의 90%수준으로 개선 남한 농업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 - 기간 : 2007~2008년 - 규모 : 송도리 농장 506ha - 방문회수 : 총 158회 - 방문인원 : 연인원 731명
영농기반강화	농업기계화, 농업용수체계 개선 자체 유기질비료 생산시스템 구축	○ 공동 영농작업 - 공동 영농작업, 공동관리 - 공동평가, 공동계획수립 - 남한 일반인도 참여하는 통일모내기/통일벼베기 행사 총 8회 개최
소득원개발	시설채소 기반, 상업적 양돈장 조성 과수원, 인삼, 근채류 시범조성	

자료 : 남북농업교류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2012. 장경호, 사)통일농수산토론회. 발제자료를 편집, 인용

남북농업협력 관련 한농연 주요 활동

❖ 2003년

- 8.15 민족공동행사 참가
-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첫 대면

❖ 2004년

- 6월, 우리민족대회 참가(인천)
- 11월, 민족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금강산) 참가

❖ 2005년

- 1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결성
 - ✓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참여
- 2월, 남측준비위원회 농민본부 결성
 - ✓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교류하기 위한 기구 결성
- 다양한 남북교류 행사 참가
 - ✓ 남북농민대표단연대회의(금강산), 민족통일대축전(평양), 8.15민족대축전(서울)
 - ✓ 못자리비닐 인수인도식, 삼일포남북공동모내기,벼베기, 개성 시범 관광 등

남북농업협력 관련 한농연 주요 활동

❖ 2007년

- 금강산 일대 농업기술교류협력 사업
 - ✓ 2006년 농기자재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남측 농민이 직접 기술교류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전환
- 6.15남측준비위원회 및 농민본부, 민화협 등 민간단체 활동 참가
- 인도적 지원 :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사업 동참

❖ 2008년

-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 농기자재 지원사업
 - ✓ 곡괭이, 조선낫, 강화호미 등 기초 자재 1200ea 지원
 - ✓ 유기왕 700포, 혼합유박 700포

남북농업협력 관련 한농연 주요 실적

❖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 측정 지표 마련, 시행

중점 추진 과제	성과측정지표
☐ 채소생산성 증대 ☐ 우량 종자·모종 공급 ☐ 토양개량/지력증진 ☐ 병충해 방제 ☐ 재배관리 개선 ☐ 작부체계 개선	- 일반포장 대비 50% 이상 - 양념, 김장, 열매채소 - 축분퇴비 공급 /유효비료 보강 - 병해충 예찰(4회), 방제지원 - 관수, 보온 확대 - 북측 선호 품목 우선 육성
↑	↑
토양개량제	유기질퇴비 (축분발효)
	우량종자
	재배관리 (멀칭/관수)
	작부체계 (품목개발)

남북농업협력 관련 한농연 주요 실적

❖ 물자지원 및 전문농업인 영농기술교류 활동

➢ 삼일포 협동농장

품 목	실 태	개 선 사 항
오 이	노균과 진딧물 응에 피해 심함	병충해 부분을 제거, 새순으로 다시 재배 지도, 약제살포, 관리기술 지도
참 외	순따기 미비로 소출저하 예상	순따기 기술 및 시기 지도
수 박	민식재배로 순 관리 곤란	1골에 1줄만 식재하도록 지도
가 지	지춥대가 없음 앞따기 미비로 소출저하 예상 이랑이 없음	지춥대 세우기 지도 앞따주기 기술지도 이랑 파기 기술지도
배 추	입식간격이 좁아 통풍이 안됨 소출 저하 예상	1골당 3개씩 식재 기술지도
감 자	대체로 잘되었음	두둑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기 타	관수 미흡	배수호스 1골당 1개 설치 지도

남북농업협력 관련 한농연 주요 실적

❖ 물자지원 및 전문농업인 영농기술교류 활동

➢ 금천리 협동농장

품 목	실 태	개 선 사 항
수 박	대체로 잘 되었음	프라스틱 받침대 필요
오 이	웃자라 있어 수확 시 애로 줄기유인과 측지 제거 미흡, 통풍 문제	줄기유인 지도 측지와 늪은 잎 제거 지도
상 추	물이 부족함, 밀식재배 됨, 꽃순이 나 있음	식재시부터 정식하도록 지도
썩 갓	물이 부족함	관정과 배수호스 설치 지도
가 지	가지치기 미흡	가지치기 지도
고 추	대체로 양호, 모종이 부족함	
고 구 마	비닐멀칭 구멍이 뚫음, 멀칭 안 잡초가 많음	멀칭기술 지도

관련 사진 자료



한농연 농기구 전달식



북측에 지원한 농자재



통일 벼베기 행사



통일 벼베기 행사



북측에 지원한 비료



완공된 하우스 전경

남북농업기술교류를 위한 주요 과제

❖ 2018년, 4.27 판문점 선언문

남과 북은 ~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 2020년,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자

❖ 이를 토대로 기 합의된 남북농업교류협력 분야 심층 검토를 통한 향후 대응방안 마련

- 과거 남북농업교류협력에 대한 성과,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단,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시행

남북농업기술교류를 위한 주요 과제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주요 합의 내용

구 분	일 시	장 소	주요 내용
제2차회담	2000년 8. 29 ~ 9.1	평양 고려호텔	▲ 북한의 자연재해에 따른 남측 식량 차관 제공 검토·추진
제3차회담	2000년 9.27~9.30	제주 롯데호텔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제4차회담	2000년 12.12~16	평양 고려호텔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결의
제5차회담	2001년 9.15~18	서울 올림픽아호텔	▲ 민간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 적극 지원 결의
제15차회담	2005년 6.21~24	서울 위커히호텔	▲ 농업분야 협력 추진을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결의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은 농업분야 협력 사업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한 분야임을 인정한 결과로써 의미가 매우 큼

남북농업기술교류를 위한 주요 과제

❖ 남북농업협력 관련 주요 합의 내용(예)

구 분	주요 내용
남북농업협력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5)	▲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대한 합의
제1차 남북농 업협력 실무접 촉 합의서 (2007)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명시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 ▲ 축산협력사업-양돈협력사업 진행,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 ▫ 남측 -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 시설 건축, 종돈, 사료 등 사육 필요 자재,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 - 구체적인 품목, 수량, 절차 등은 쌍방 이행기구의 협의로 결정 ▫ 북측 - 양돈협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제공 -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 신변안전, 기타편의 보장

→ 이와 같은 남북농업협력 관련 기 합의서, 선언문(사례) 전반을 검토하여 단, 중장기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

남북농업기술교류를 위한 주요 과제

❖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계적 지원 필요

- ❖ 북한 스스로 만성적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 ❖ 1차적으로는 북측의 요구를 중심으로 단기적 지원 지속(UN 대북제재 우회)
- ❖ 대북 농자재 지원, 농업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토대 마련

❖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을 통한 통일농업 실현

-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의 예측하기 어려운 정세가 지속적으로 반복
- 인도적 식량, 자재 지원 등은 과거 “퍼주기” 논란으로 일부 국민적 갈등 유발
- 남북농업협력이 북측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Win-Win 전략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방안을 적극 검토
 -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동작물 재배
 - ✓ 식량위기에 대응한 한반도 식량자급률 향상 및 작물 생산성 제고
 - ✓ 구상무역 형태의 물자교류 등 (남한의 식량, 북한의 광물·지하자원 등)
 - ✓ 장기적으로는 남북농업협력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남북농업협력기술교류센터 구상

❖ 일원화, 체계화된 교류 채널 개설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확대

- 정치적, 정세적 변화에 기인한 남북농업협력 이행의 불확실성 해소
- 남북농업협력의 단·중·장기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당할 전문적 기구 성격(예시)
 - ✓ 단기 : 인도적 식량지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지원
선도 농업인 중심의 활발한 농업기술 교류 활동 추진
 - ✓ 중장기 : 낙후된 북한 농업 인프라 회복 및 확충(댐, 저수지, 지하수 관정, 수로 등)
남북 간 유전자원 조사·연구를 통한 한반도 토종 품종 개발·보급
- 정부, 민간(단체, 기업), 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정립
- 민간 차원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통일농업의 교두보 마련



감사합니다

MEMO

21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21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tent.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실현을 위한
**범농업계
공동토론회**

주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 실천하는 여성농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우리농업의 희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후원 |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정